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58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9.11~2025.09.17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지하수(한국공항), 대통령(이재명), 오영훈, 기초자치단체, 중국
경제·관광	청년, 관광객, 콘텐츠, 제품, 수요
지역·사회	밀입국(중국인/고무보트), 검거, 평화, 여성, 사건

※ 분석 기간 : 25.09.11.~25.09.17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지하수	-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계획 보류 - 증산 허가 여부 법적 해석 대립 - 하원테크노캠퍼스 취수량 증량
	대통령(이재명)	- 지역 균형 발전 구상 발표 - 국정과제 확정 및 제주 현안 - 남북 관계 및 국정 방향 제시
	오영훈	-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법적 공방 -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 - 아동·스포츠 안전 관리 강화 지시
	기초자치단체	- 2026년 7월 도입 공식 무산 - 민주당 내 이견과 속도 조절론 - 추진 계획 수정 및 행정 준비
	중국	- 제주-중국 교류 확대 및 협력 - 하이난 면세특구의 위협 -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과 과제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청년	-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 청년 한부모가구의 높은 비중
	관광객	- 관광객 감소와 업계의 위기 - 고물가 논란과 신뢰 회복 과제 - 관광객 유치 위한 총력 대응
	콘텐츠	- K-콘텐츠 연계 팬덤 관광 활성화 - 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 제기 - 지역 특화 체험 콘텐츠 강화
	제품	- 제주 로컬 브랜드 육성 및 홍보 - 제주의 신성장 동력, 반도체 산업 - 친환경 녹색제품 소비문화 확산
	수요	-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수요 위축 - 관광객 수요 감소에 따른 업계 대응 -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밀입국(중국인/고무보트)	- 치밀하게 계획된 밀입국 과정 - 밀입국자들의 불법체류 전력 - 해상 경계 시스템의 허점 노출
	검거	- 밀입국 중국인 및 조력자 검거 - 교제폭력 가해자 연인 살해 - 교직원 상대 악성 민원 학부모
	평화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둘러싼 갈등 - 세계 평화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제주 동남방 한미일 군사훈련 반발
	여성	- 제주 여성 젠더폭력 실태 심각 - 제주도의원, 여성 공직자 성차별 발언 - 여성 창업 교육, 93% 창업 성공
	사건	- 성산일출봉 낙석 사고 발생 - 기습 폭우로 인한 피해 속출 - 군부대 훈련 중 폭발 사고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9월 11일~9월 17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41건임
 - 정치·행정 분야 420건, 경제·관광 156건, 지역·사회 365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지하수(한국공항), 대통령(이재명), 오영훈, 기초자치단체, 중국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지하수(한국공항)	-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계획 보류 ·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에서 4400톤으로 늘리는 증산 동의안 심사를 보류함. 이는 지하수의 공공적 가치(공수화 원칙)와 사기업 특혜 논란에 대한 도민 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결정으로 분석됨 · 한국공항 측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통합에 따른 기내 음용수 수요 증가를 증산 이유로 제시하며, 시중 판매 중단 및 지역사회 환원 강화를 약속했으나 의회 설득에 실패함. 이번 보류로 지하수 증산 문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	-----------	---

정치·행정	지하수(한국공항)	- 증산 허가 여부 법적 해석 대립 ·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가능 여부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 간의 법률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함. 제주도는 2019년 법원 판결을 근거로 증산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나, 도의회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함 · 2017년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증산에 부정적 해석을 내놓았으나, 2019년 법원은 제주도의 증산 신청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 이 판결의 해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됨 - 하원테크노캠퍼스 취수량 증량 ·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존 지하수 관정의 취수 허가량을 현재 9800톤에서 1만 4000톤으로 증량하는 방안이 추진됨. 이는 신규 관정 개발 없이 기존 허가량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임 · 해당 증량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후 결정된 사안으로, 지하수 고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오폐수 처리 방식도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변경됨
	대통령(이재명)	- 지역 균형 발전 구상 발표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표명함. 지방에 대규모 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 권역 구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모든 정책 결정 시 환경영향평가처럼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정 및 사회간접자본(SOC) 배분에서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함 - 국정과제 확정 및 제주 현안 ·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됨. 제주 제2공항은 명칭이 삭제되고 '신공항 사업 추진'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됐으며, 이는 새만금공항 판결 등 신공항 관련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됨 ·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은 국정과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추진 동력을 확보함. 또한 제주 해상풍력 단지 구축과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등 제주도가 선도하는 정책들도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 남북 관계 및 국정 방향 제시 ·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남북 관계를 냉랭하다고 진단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북미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함 ·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상향 등 세제 개편 방향도 제시함.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향후 국정은 '도약과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함

정치·행정	오영훈	-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법적 공방 · 제주도가 '12·3 불법 계엄 당시 오영훈 지사가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했다며 특정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 이는 지사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임 · 고발당한 당사자인 고부건 변호사와 일부 도민들은 "정당한 비판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함. 계엄 당일 지사의 행적과 도청의 '청사 폐쇄'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고발 철회와 사과를 촉구해 논란이 확산됨 -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 · 정청래 당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국비 805억 원 증액을 요청함. 전국체전 운영, P2H 에너지 사업,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등이 주요 증액 요청 사업임 ·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자신의 1호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과 포괄적 권한 이양 등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당 차원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함. 민주당 지도부는 제주 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약속함 - 아동·스포츠 안전 관리 강화 지시 · 서귀포시 초등학교 유괴 시도 사건과 전국 복싱대회 참가 학생 중태 사고를 계기로 도민 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함. 행정시와 자치경찰단에 학교 주변 순찰 강화를 지시하고 교육청과의 협업을 당부함 · 스포츠 대회와 관련해 지도·감독 책임자로서 유감을 표하며, 안전 관리 및 응급 이송 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함. 민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대회일수록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초자치단체	- 2026년 7월 도입 공식 무산 · 오영훈 지사가 2026년 7월을 목표로 추진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어렵다고 공식 발표함.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 지연과 정치권 내 이견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도정의 핵심 공약이 좌초되면서 도의회에서는 추진 과정의 미숙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옴. 일부 의원들은 도민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해당 과제를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함 - 민주당 내 이견과 속도 조절론 ·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표출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됨. 김한규 의원은 3개시 분할에 반대하며 '제주시 쪼개기 금지법'을 발의했고, 이상봉 도의회 의장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제주를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시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속도 조절을 시사함. 당 차원에서는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는 기류가 형성됨 - 추진 계획 수정 및 행정 준비 · 오영훈 지사는 도입 시기를 2027년이나 2028년으로 수정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함. 하지만 이마저도

정치·행정	기초자치 단체	행정구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임 · 도입 시기 연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추진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임. 법규 제정, 사무 이관 등 312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하며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가고 있음
	중국	- 제주-중국 교류 확대 및 협력 · 오영훈 지사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만나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등 지방 외교 확장 방안을 논의함.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한중 환해연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양 지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함 · 지난 5월 침수 사고를 당한 제주 어선 선원 8명을 구조한 중국 해경 대원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 이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사례로, 해양 안전 및 구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기가 됨 - 하이난 면세특구의 위협 · 중국 정부가 하이난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기 위해 파격적인 면세 정책을 펼치면서 제주 면세 산업이 위협받고 있음. 연간 면세 한도를 19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스마트폰 등 품목을 확대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함 · 하이난의 급성장으로 제주를 찾던 중국 관광객과 보따리상의 발길이 하이난으로 향하면서 국내 면세 산업이 위기에 직면함. 이는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소비 유치에 직결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과 과제 · 오는 10월 29일부터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잇는 7500톤급 화물선이 정기 취항할 예정임. 이는 57년 만에 부활하는 바닷길로, 물류비 절감과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그러나 개설 초기 예상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적자 운항이 우려됨. 이로 인해 제주도가 중국 선사에 연간 최대 40억 원의 손실보전 비용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물동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청년, 관광객, 콘텐츠, 제품, 수요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청년	-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제주농협이 유휴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농지임대사업'을 시작함. 선배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수료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도는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돕기 위해 '청년농업인CEO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함. 또한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빌리는 청년에게 임대료의 50%(최대 100만원)를 3년간 지원하는 등 초기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 최근 20년간 제주의 청년층은 직업과 교육을 주된 이유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경향을 보임. '제주살이' 열풍이 불었던 2013년에서 201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반면 수도권의 중장년층은 자연환경 등을 찾아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이는 제주가 청년층을 유인할 경제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중장년층에게는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	----	---

경제·관광	청년	- 청년 한부모가구의 높은 비중 · 제주지역 유자녀 청년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9.7%로 전국 평균(7.6%)을 크게 웃돌며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전체 유자녀 청년 가구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한부모가구 비중은 오히려 상승해 해당 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중요해짐 · 제주 청년 한부모가구의 등록 취업 비율(68.9%)과 연간 중위소득(2529만원)은 양부모가구보다 낮아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다만, 양부모가구의 소득 격차는 1539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아, 상대적인 소득 불평등은 타지역에 비해 덜한 것으로 분석됨
	관광객	- 관광객 감소와 업계의 위기 · 제주 관광업체들은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관광객 감소'(60.3%)를 꼽았으며, 이로 인해 최근 1년간 도내 업체의 84.7%가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함 · 업종별로는 렌터카·운송업(100%)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문화·체험업(90.5%), 쇼핑업(87.8%) 등이 뒤를 이음. 향후 1~2년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4%가 부정적으로 답해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고물가 논란과 신뢰 회복 과제 · 제주 관광업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숙박·렌터카·식비 등 가격 불만'(55.0%)을 지목함.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서 관광객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업계는 비정상적인 물가 인상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관광소비자 치에 기반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관광객 유치 위한 총력 대응 · 제주도와 관광 유관기관들은 내국인 관광객 '플러스 전환'을 목표로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현장 홍보 캠페인을 전개함. 가을 시즌과 하반기 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버스킹,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제주 여행 분위기를 조성함 · 성수기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9월 26일부터 '가을시즌 제주여행주간'을 운영하며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을 제공함. 또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사증 제도 시행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콘텐츠	- K-콘텐츠 연계 팬덤 관광 활성화 · BTS,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등 K-콘텐츠가 해외 팬들의 제주 방문을 유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퍼플페스타 인 제주'와 같은 행사를 통해 BTS 촬영지를 방문하고 관련 체험을 즐기는 팬덤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짐 · 해외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 아이돌이 즐긴 승마체험이나 드라마 속 해녀체험 등이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성지순례형 여행'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남. 이는 콘텐츠 감상이 여행 실행 욕구로 직접 전환될 수 있음을 증명함

경제·관광	콘텐츠	- 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 제기 · 제주 관광업계는 고물가 문제 다음으로 '관광 콘텐츠 부족'(43.3%)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함. 제주의 최대 강점으로 '자연경관'이 꼽히지만, 이는 역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보여주며 관광상품 다변화의 한계를 드러냄 · 향후 사업 확장 계획으로 '콘텐츠·서비스 개발'(55.1%)을 가장 많이 꼽아, 새로운 즐길 거리에 대한 업계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격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 콘텐츠 혁신이 핵심 과제임을 시사함 - 지역 특화 체험 콘텐츠 강화 · '제주여행주간'을 통해 제주시 원도심(도보여행), 애월(캠핑), 조천(힐링) 등 권역별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는 관광객에게 제주의 색다른 매력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접근임 · 유명 유튜브 채널과 협력하여 제주 재래 흑돼지의 역사와 맛을 탐구하는 미식 인문학 콘텐츠를 제작, 제주의 음식문화를 깊이 있게 조명함. 이는 단순한 '먹방'을 넘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전달하며 관광 경험의 가치를 높이는 시도임
	제품	- 제주 로컬 브랜드 육성 및 홍보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제주의 독창적 스토리를 담은 식음료, 향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서울 동대문에서 통합 팝업스토어 '온:동네'를 운영함. 이는 지역 자원과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상품의 가능성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는 기회임 ·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에도 로컬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열어 여행객들이 도착 직후부터 제주의 감성을 경험하게 함. 감귤, 해녀 모티브 상품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주류 등을 판매하며 제주의 가치를 담은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제주의 신성장 동력, 반도체 산업 · 반도체는 제주 전체 수출의 57.6%를 차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8개월 연속 전국 수출증가율 1위를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특히 중화권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올해 누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6%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 AI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메타씨앤아이'가 서울 강남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면서 지역 특화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이는 제주도가 첨단 연구개발 기반의 팹리스(Fabless) 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친환경 녹색제품 소비문화 확산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모니터링 결과, 도내 대규모 유통매장 5곳 모두 법정 기준(10㎡) 이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확보·운영하고 있음. 이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 녹색제품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으로, 생활용품부터 전자제품까지 다양함. 매장 내 인증표시물 부착과 진열 상태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유도함

경제·관광	수요	-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수요 위축 · 8월 제주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5년 3개월 만에 최저치(88.0)로 하락하며 7개월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함.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하강 국면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최악의 침체로 평가됨 ·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전국 유일의 하강 국면에 머물러 있음. 미분양 물량 누적과 수요 감소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며 지역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관광객 수요 감소에 따른 업계 대응 · 제주 관광업계는 관광객 감소(60.3%)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이는 매출 급감으로 직접 이어지고 있음. 관광 수요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격 불만'과 '콘텐츠 부족'이 지적되며,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 항공업계는 황금연휴를 앞두고도 항공 수요가 줄자, 빈 좌석을 채우기 위해 제주행 항공권을 1000원까지 낮추는 등 출혈에 가까운 특가 경쟁을 벌이고 있음. 이는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인 주도로 기획된 '골목 활력 페스타'를 추진함. 각 상권의 특색을 살린 할인 행사, 경품 추첨, 문화공연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함 · 제주도는 소득 하위 90%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함.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해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밀입국(중국인/고무보트), 검거, 평화, 여성, 사건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밀입국(중국인/고무보트)	- 치밀하게 계획된 밀입국 과정 · 중국 장쑤성 난통시에서 90마력 고무보트로 출발, 약 440km를 17시간 이상 항해해 제주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함. 이들은 모집책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SNS를 통해 밀입국을 모의하고, 1인당 약 400만 원씩 모아 보트와 연료 등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됨 · 제주 해안 20km 지점에서부터 해경 추적을 피하고자 GPS 플로터 장비를 끄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제주 도착 후에는 각자 택시를 타고 흩어져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은신함. 이 과정에서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일부는 제주를 빠져나가 충북 청주까지 도주하기도 함 - 밀입국자들의 불법체류 전력 · 검거된 6명 전원은 과거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제주 등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들은 감귤밭, 양식장 등에서 일하다 강제 출국 당했으며, 이로 인해 합법적인 재입국이 불가능해지자 밀입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됨 · 이번 밀입국 목적 역시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제주에 불법 체류할 당시 중국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다시 들어오게 된 것으로 파악됨. 과거 체류 경험으로 제주 지리에 익숙했으며, 당시 알게 된 지인과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쉽게 은신처를 찾을 수 있었음
-------	---------------	--

지역·사회	밀입국(중국인/고무보트)	- 해상 경계 시스템의 허점 노출 · 밀입국자들이 440km의 거리를 17시간 넘게 고무보트로 항해해 제주에 상륙할 때까지 군과 해경의 감시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아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번 사건은 주민 신고가 없었다면 밀입국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을 상황임 · 해경은 고무보트가 크기가 작고 재질이 고무인 데다 속도가 빨라 레이더 탐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함. 또한 제주 해경의 관할 해역이 제주도 면적의 50배에 달할 정도로 넓어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모든 해역을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검거	- 밀입국 중국인 및 조력자 검거 · 주민 신고로 밀입국 사실이 드러난 후, 해경과 경찰은 합동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 발생 5일 만인 12일, 충북 청주까지 도주했던 마지막 1명을 포함해 밀입국자 6명 전원을 검거함 · 밀입국자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은신하거나 도외로 도주하는 것을 도운 조력자들도 잇따라 검거됨. 해경은 밀입국자 전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력자들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함 - 교제폭력 가해자 연인 살해 ·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6년간 교제해 온 동갑내기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됨. A씨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술에 취해 자세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이들은 6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으며, 교제 기간 동안 A씨의 폭행 등으로 총 5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됨.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의 학대예방전담경찰관(APO) 관리 대상이었으나, 최근 3개월간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호가 해제된 지 두 달 만에 변을 당함 - 교직원 상대 악성 민원 학부모 ·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무더기 고소하고, 살해 협박 등 위협적 발언을 일삼은 학부모 A씨에 대해 경찰이 협박 및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함 · A씨가 고소한 교직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음. 제주교사노조는 전국 교사 76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함
	평화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둘러싼 갈등 ·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반대 단체의 반발로 지연되면서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반대 측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다며 폐기를 주장하고, 도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함 · 찬성 측은 헌장이 4·3의 교훈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도민 65.2%가 찬성한다는 제주연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함. 4기 인권위원회 임기가 9월 말 만료 예정이라, 기한 내 의결되지 않으면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지역·사회	평화	- 세계 평화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제주도교육청이 유엔 '세계 평화의 날'과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지정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1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2025 세계 평화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함. 이번 행사는 '기억과 평화로, 다시 제주에서'를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평화교육의 장으로 꾸며짐 · 행사에는 도내 192개교 학생과 보호자, 도민, 거주 외국인 등이 참여하며,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4·3 역사와 인권 가치를 되새기는 체험 부스 운영, 학생 창작물 전시, 평화 편지 낭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임 - 제주 동남방 한미일 군사훈련 반발 ·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리는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예지'의 종단을 촉구함. 이들은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함 · 훈련 장소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임을 지적하며, 한국의 참여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훈련 종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함
	여성	- 제주 여성 젠더폭력 실태 심각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제주 여성 4명 중 1명(26.5%)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젠더폭력에 대한 두려움(2.85점)이 전국 여성 평균(2.6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 피해의 40.5%와 성추행 피해의 31.1%가 직장 상사 및 동료에 의해 발생해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교제폭력 피해 경험자 중 85%가 여성이었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함 - 제주도의원, 여성 공직자 성차별 발언 ·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이 도의회 임시회 중 성평등정책관에게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 "웃으시면 더 좋을 텐데" 등의 발언을 해 성차별 논란을 빚음 · 제주여민회 등 여성단체는 이를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명백한 성차별적 언행으로 규정하고, 도의회에 공식 사과와 가해 의원 징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함. 단체는 피해자의 사과 수용과 별개로 도의회의 징계 절차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여성 창업 교육, 93% 창업 성공 · 제주도와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한 '제주로컬 마케팅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에 참여한 여성 15명 중 14명(93%)이 창업에 성공하는 높은 성과를 거둠 · 교육 과정은 온라인 홍보,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료 후에도 멘토링, 컨설팅, 박람회 부스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창업 초기 안정을 지원함. 일부 수료생은 영상 공모전 수상, 도민대학 강사 위촉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지역·사회	사건	- 성산일출봉 낙석 사고 발생 · 15일 저녁,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서 70~80cm 크기의 암반 2개와 나무 3그루가 3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 낙하 지점이 등산로에서 떨어진 접근금지 구역인 진지동굴 인근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음. 사고 발생 이틀 전인 13일,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제주도는 별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기습 폭우로 인한 피해 속출 · 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 전역에 시간당 최고 97mm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정전, 땅꺼짐 등 피해가 잇따름 · 12일 새벽에는 폭우와 낙뢰로 2600여 가구가 정전되고 주택·비닐하우스 침수, 하천 범람 우려, 창고 화재 등이 발생했으며 , 15일 낮에도 제주시를 중심으로 도로 침수와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함 - 군부대 훈련 중 폭발 사고 · 10일 서귀포시 소재 공군부대에서 예비군 동원 훈련 중 연습용 지뢰 뇌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훈련을 받던 예비군 6명과 교관 1명 등 총 7명이 찰과상과 이명 등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후 귀가함. 같은 날 경기도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도 모의탄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군 훈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